

“소원을 말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행,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 위시박스 눈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해의 강수민(11세·가명) 양은 할머니와 맛있는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상 업무를 낼 수 없었다. 사진작가가 꿈인 대구의 박지현(16세·가명) 양 역시 카메라를 갖고 싶었지만 시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가정 형편상 꿈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서 실시하는 ‘위시박스’의 도움을 받은 결과였다. 외식상품권을 받고 할머니와 즐거운 외식을 한 강수민 양은 동행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보내주었고 박지현 양 역시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뜻을 밝혔다.

동행,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 위시박스 눈길

신경 품목도 다양하다. 자전거, 축구화, 한복, 재봉틀, 책가방 등을 착한 선물로 지원했으며, 접수된 사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신장자들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금연주가가 꿈인 서울 은평구 박가연(19세·가명)양은 지난 5월 위시박스에 선정되어 한복을 선물 받았다. 가연 양은 11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해금을 배우며 정서적 위

한복, 카메라, 자전거, 축구화 등 품목 신청하면 선별해 선물 지원 300여 명 물리며 뜨거운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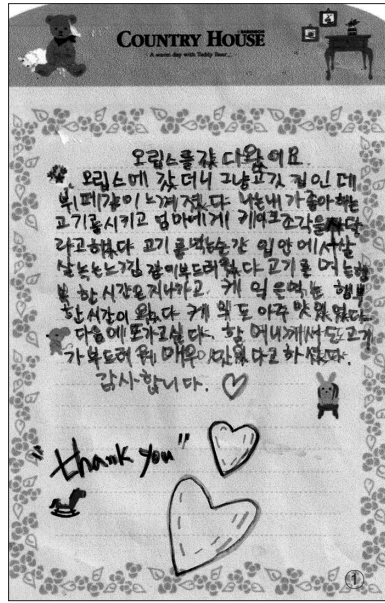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 중인 ‘위시박스’ 신청이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으로 시작된 ‘위시박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원을 신청 받아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은 “청소년들의 자기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자신의 꿈에 한발 짝 다가가고자하는 전국 청소년들의 신청이 약 150여 건 접수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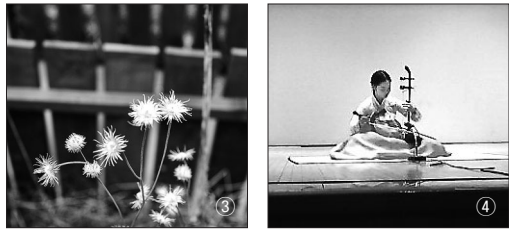
안을 받았다.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 대회에 나가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박가연 양은 “그동안 대회에 입고 나갈 한복이 없어 어머니의 오래된 한복을 입고 대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선물 받은 예쁜 한복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준 희망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힐튼스프츠(대표 최진규)에서 1천만원 상당의 자전거 50대를 지원 받아 불



아름다운 동행의 ‘위시박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원을 신청 받아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①은 외식상품권을 받은 학생이 보낸 감사의 손편지, 사진②는 자전거를 선물 받은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의 회원, 사진③은 사진작가가 꿈인 학생이 카메라를 선물 받고 보내온 사진, 사진 ④는 해금연주가가 꿈인 학생이 한복을 선물 받고 공언하는 장면.



교제 아동·청소년 시설 9곳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자전거를 선물 받은 서울 노원구 이민우(18세) 군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께 자전거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다. 이제는 자전거로 등하교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은 “매월 위시박스 신청자가 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신청자에 비해 많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아쉽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

들의 착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 ‘위시박스’는 한평생 홀로 삼남매를 기양 온 여성 기부자가 3천만 원의 유산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자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유언에 따라 선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매달 말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선정자는 다음 달 12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02)737-952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구촌공생회, 메마른 캄보디아에 감로수를

상반기 타페임면에 우물 36기 신규 건립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36기를 건립하면서 2015 상반기 식수사업을 마무리했다.

캄보디아 타페임면의 주요 수자원인 빗물, 연못, 하천, 재래식 우물의 물은 건기에는 부족하고 타 단체에서 지원받은 핸드펌프 중 90%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36기의 우물을 건립한 지구촌공생회는 “이번 우물 건립으로 2천7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수질 환경이 열악한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는 1년의 절반 이상이 우기로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비소 함유로 마실 수 있는 물은 부족하다.

그래서 캄보디아 80%인구가 거주하는 시골 지역 인구 절반은 안전하지 못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수도 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이 오염된 물로 수인성 질병에

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800명 이상이 수인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그동안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우물들은 사후관리가 부족해 우물이 폐쇄되고 지하수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우물 건립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 철저하고 꾸준한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우물 사용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구촌공생회는 하반기에는 12개 마을에 38기의 우물을 건립해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생명의 감로수를 전해줄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 따깨오주 타페임면 21개 마을에 36기의 우물을 완공한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2천204 기의 우물을 건립에 이르게 되었다.

정혜숙 기자



지구촌공생회는 올 상반기 캄보디아 따깨오주 타페임면 21개 마을에 36기의 우물을 완공했다.

생명나눔,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발대식

의대생들로 구성, 자살 예방 캠페인 펼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1기 발대식을 7월 5일 진행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7월 5일 생명나눔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사무총장 미수 스님을 비롯한 따숨 회원 7명이 참석했다. ‘따숨’은 ‘따뜻한 숨결’이라는 의미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자원활동가 모임이다. 따숨 1기 회원 8명 모두는 의과대학 학생들로,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 의대생 연합모임 메디키퍼(Medikeeper) 소속이다.

도연수 지원팀장의 개회사 선언으로 시작된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회장 김동욱 학생과 부회장 강민수 학생의 선서식으로 마무리 됐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웃음치료 전문강사 윤경필 교수의 ‘웃음과 건강, 그리고 힐링’ 강연이 이어졌다.

따숨 1기는 앞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 후, 약 5개월 간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동영상 제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인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미수 스님은 “따숨 학생들이 단체명을 스스로 정하고 로고도 직접 만드는 등 시작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숙 기자

영통복지관 발달도서관 인문학 강좌 진행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3년 연속 선정된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학수) 발달어린이도서관이 ‘다산 정약용’에 관한 강연을 비롯해 관련 현장 체험 탐방 등의 시간을 마련했다.

1차 길 위의 인문학은 7월 30일부터 시작하며, 가족단위의 행사로 진행된다. 한국음악학 박사 김세종 교수와 함께하는 ‘아학’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수월화성과 다산생가를 탐방하게 된다.

2차 길 위의 인문학은 10월 29일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 음성에서 만나는 다산의 유배문학’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단위로 모집하며, 2차 참가신청은 10월 1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031)201-8350 정혜숙 기자

대인관계 중요성 배우며 심신 단련

목동청소년수련관 ‘엄친아’ 7월 30일부터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친구관계향상 프로그램 ‘엄.친.아.엄청.친.해지고 싶은 아이!’를 7월 30일~8월 22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자아형성과 대인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심신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친구관계’라는 발달과업을 돕기 위한 하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특히, ‘나를 알고, 너를 알기’와 같은 프로그램 회기를 만들어 학교생활 및 친구사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성격유형검사인 MBTI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간단한 심리상담 및 게임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고 타인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교양교육, 인성교육, 신체활동, 공동체 등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친구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참가비는 프로그램별 1인 만 원이며, 수련관 홈페이지(www.wawa.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2)2642-1318 정혜숙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yk-308 표준 범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범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 대出力 막싱앰프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원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